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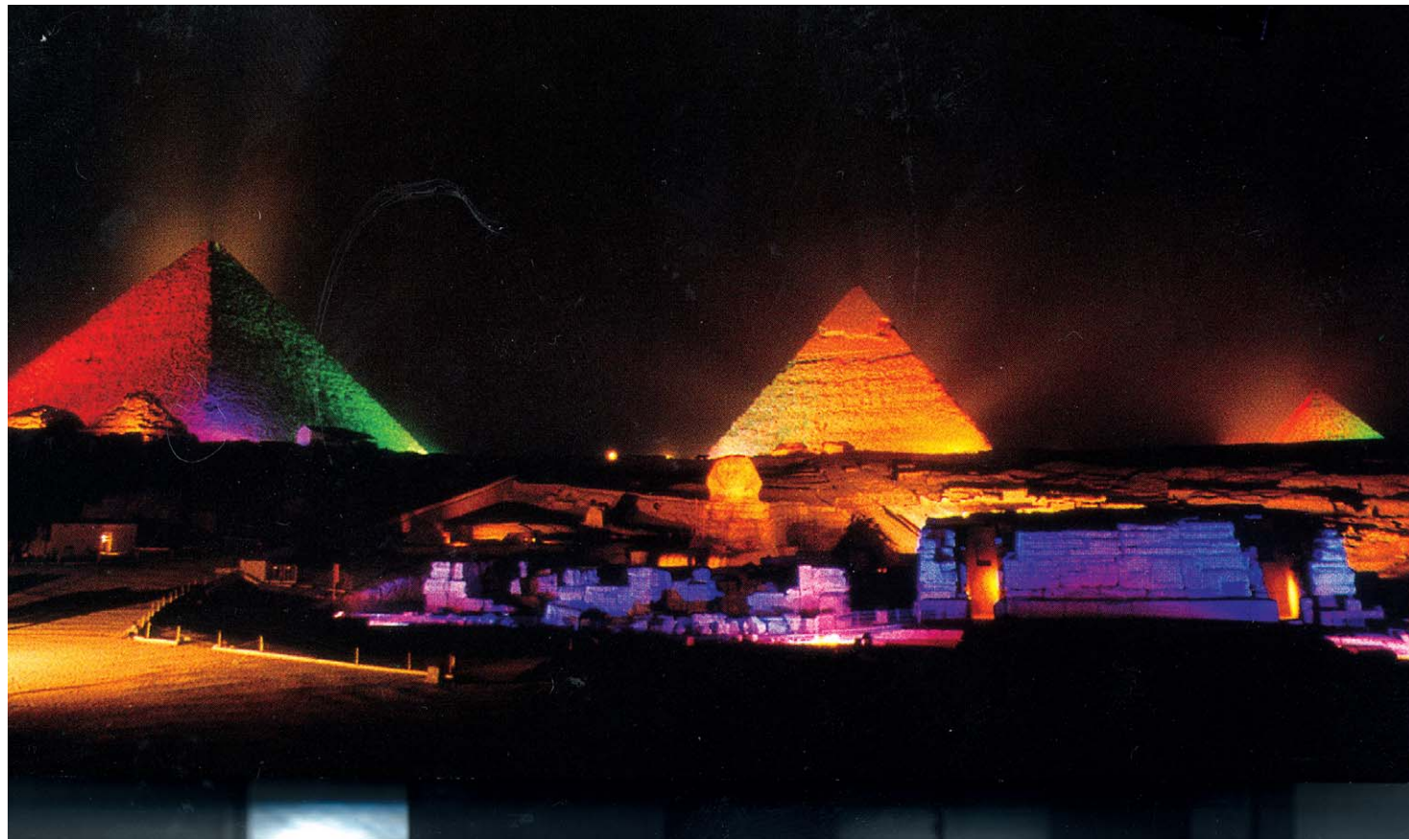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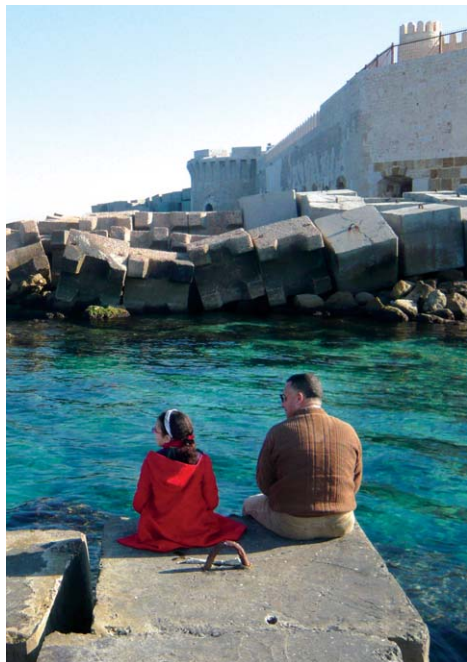
‘불가사의’ 도 제행무상 못 벗어나

248m, 경사면의 각도는 52도이다. 대피라미드는 약 5000년 전에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다. 신비론자들은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 건설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화성에서 온 외계인들이 화성과 연락하기 위한 송수신기지로 삼기 위해서 화성의 피라미드를 지구에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불가사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몇 가지 추려보면 이렇다. 첫째, 부지 선정에 관한 신비다. 현대 건축가들은 100년에 15cm 정도 침강하는 땅은 고층 빌딩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한다. 미국 국회의사당은 200년 동안 12cm 정도 침강했다. 대피라미드의 돌무게를 합산하면 685만 톤이다. 그것은 5000년 동안 1.25cm 가라앉았다. 지진과 지반운동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다. 1992년 이집트에 강도 6의 강진이 발생한 적이 있다. 400여명이 사망하고 만여 명 부상, 수백채의 가옥과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나 피라미드 속에 있던 관광객들은 미동도 느끼지 않았다.

둘째, 피라미드 건설에 소요된 돌의 공급, 다듬는 문제도 불가사의하다. 쿠푸왕의 피라미드를 쌓는데 소요된 돌은 높이 1m, 폭 2m, 평균 무게 2.5톤짜리 돌 약 250만 개다. 이것을 약 1000km 떨어진 아스완 지역에서 가져왔다. 돌을 나르는 수송로를 만드는 데만 10년이 걸렸다. 당시는 수레나 말을 이용한 수송방법을 모르던 시절이다. 지레나 굴림대, 밧줄이 운송수단이다. 그렇게 옮긴 돌을 연인원 10만 명이 20년 걸러 건설했다. 돌은 다듬는 문제도 불가사의하다. 기원전 2600년이면 청동기 시대다. 철제 도구가 없던 시절이다. 청동 연장을 사용하여 채석장에서 2.5~10톤 나가는 돌을 오차 없이 자르고 다듬었다. 왕묘실에 있는 돌은 무게가 40톤이나 되는 화강암이다. 불가능 혹은 불가사의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이집트 문명의 젖줄, 나일강
이집트는 국토의 한 가운데를 나일강이 남북으로 흐른다. 그래서 이집트 여행은 편하다. 나일강을 따



피라미드의 야경. 왼쪽부터 멘카우라, 카프라, 쿠푸왕의 피라미드.

불리한 기후·지형적 조건에서도 찬란한 문명 창조 유네스코, 아부심벨 신전 수몰 위기서 구제하기도

라 모든 유적이 늘어서 있다. 나일강변을 벗어난 동서부 지역은 모두 사막이다. 도시와 문명은 6600km 인 나일강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6000만 명의 인구도 나일강변에 살고 있다.

일 년 내내 거의 비한방울 내리지 않고 국토의 95%가 사막인데 어떻게 찬란한 문명을 창조했을까. 나일강 상류인 아프리카 지역의 풍부한 강수량 덕분이다. 이집트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지만 나일강은 언제나 푸르게 넘실대며 흐른다. 아프리카 지역에 우기가 되면 나일강은 범람한다. 6월말경이 가장 심하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주변 토지는 구획이 사라진다. 측량 기술이 발달한 것은 나일강 범람 때문이다. 범람이 끝나면 측량을 해서 내 땅, 네 땅을 다시 구분한다.

그러면 나일강의 범람은 재앙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축복이다. 상류에서 흘러온 유기질이 풍부한 흙더미가 그대로 침전되어 거름이 필요 없는 옥토가 된다.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농토는 적당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물을 주지 않아도 풍년이 보장된다. 홍수 때 한강, 낙동강의 범람으로 수해의 추억이 있는 우리로서는 부러운 축복이다.

나일강의 범람은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1902년 나일강 상류에 아스완 댐이, 1971년 더 위쪽에 아스완 하이댐이 건설되었다. 댐에 가두어진 물은 거대한 호수를 이루었다. 나세르호이다. 댐을 만들면 수몰지구가 생긴다. 수몰예정지구에는 사는 주민들은 정든 땅을 버리고 이사를 가야한다. 고대 유적 또한 예외가 아니다. 수단 국경 근처에 있는 람세스 2세의 유적인 아부심벨이 대표적인 수몰 유적이다.

아부심벨 구하기
아부심벨 지역에는 위대한 전사이자 건축가인 람세스 2세가 지은 두 개의大神전이 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大神전이고 다른 하나는 왕비 네페르티티와 사랑과 미의 여신 히토트를 위한大神전이다. 람세스 2세는 영화 <십계>에서 울 브리너가 역을 맡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집트의 파라오(왕)다.

람세스 대왕이 건설한 아부심벨大神전은 아스완 하이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하자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유네스코는 인류 문화유산을 구하기 위해 1960년 범세계적인 운동을 전개해 1964년 유적을 구출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대규모 작업을 위

해 이집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웨덴에서 모인 3000명의 전문가로 구조팀이 구성되었다.大神전의 조각과 장식을 2000개의 조각으로 잘랐다. 해체된 돌의 한 개 무게가 10~40톤이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복원작업은 5년이 걸렸다. 소요된 비용은 4000만 달러였다. 새大神전은 돌이 차지 않는 200m 위 새로운 터에 완벽하게 복원했다. 어림잡아 석굴암의 천배쯤 되는 규모의 석굴大神전을 훼손 없이 옮긴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왕들은 불멸의 욕망을 채우고자 거대한大神전을 세웠고 후손들은 역사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불가사의’의 유적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인간의 욕망을 대변할 것이다. 그러나 연젠기는 허공으로 돌아갈 욕망이고 역사가 아니겠는가. 굳이 제행무상(諸行無常)의 도리가 아니어도 욕망의 역사와 우주 순환의 질서는 영원히 함께 갈 수 없을 것이므로.

여행 야담
여정은 나일강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코스를 잡았다. 카이로에서 밤기차를 타고 15시간 걸려 아스완에 도착. 아부심벨까지는 사막 한가운데로 난 도로를 따라 버스로 4시간. 다시 아스완으로 돌아와서 배를 타고 2박3일 나일강 크루즈로 룩소르 가는 도중 수시로 배에서 내려 콧물, 에드프, 에스나를 들렀다. 룩소르에서 기차를 타고 다시 카이로로, 거기서 버스로 수에즈, 알렉산드리아 등을 둘러보았다.
글·사진·이우상·소설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과 야망

1963년 만든 미국 영화 ‘클레오파트라’ 엘리자베스 테일러(클레오파트라)와 리처드 버턴(안토니우스)의 명연기로 스크린을 달구었다. 그녀는 이집트가 로마에 병합되기 전까지 이집트를 다스린 마케도니아 왕조의 마지막 군주다. 훌륭한 군주로서의 명성보다는 빼어난 미모와 격렬한 사랑의 화신으로 그녀를 기억한다. ‘육감적인 입과 단호한 턱, 부드러운 눈매, 넓은 이마, 높은 코를 가졌으며 목소리는 줄이 많이 달린 현악기가 울리는 음색이었다(그리스 전기작가 풀루타르코)’. 그녀는 당대 가장 위대했던 로마인 두 사람,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사로잡았던 세 번째 사람 때문에 파멸했다(로마 역사가 디오 카시우스). 로마의 장군 시저는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이집트를 손에 넣고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다. 영웅 기질을 타고난 시저는 이집트를 평화롭게 통치하지만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음모를 꾸민다. 시저의 아들 부루투스는 시저를 제거하려는 음모에 가담한다. 아버지를 배신할 운명을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인다. 시저는 뛰어난 통솔력을 가졌지만 자신을 배신할 세력이 바로 자신의 부하들과 아들이라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한 다. 결국 부루투스는 시저에게 칼을 꽂는다. 시저의 죽음으로 이집트는 혼란에 빠진다. 이를 평정하기 위해 안토니우스가 나선다. 재치와 용기, 카리스마로 무장한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혼란을 수습하고 클레오파트라와 사랑까지 얻는다. 그러나 계속되는 주변 국가와의 마찰과 부하들의 반란음모로 안토니우스는 몰락한다. 이집트는 다시 혼란에 빠진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매력과 정치력을 모두 발휘했음에도 후원할 상대를 2번이나 잘못 고른 셈이다. 실권은 옥타비아누스에게로 돌아갔다. 그녀는 다시금 매력을 발휘해 옥타비아누스를 유혹했지만 실패한다. 파멸의 징조를 간파한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안토니우스 곁에 몰아넣는다. 유언을 남기고 자살한다. 왕가 대대로 내려오는 장신구들을 모두 걸친 채 황금침대에 누워 이집트 왕가의 상징인 코브라에 물려 죽었다. 클레오파트라다운 화려한 죽음이었다. 22년간 여왕으로 군림하다 39세에 죽었다. 소원대로 그녀는 안토니우스와 함께 묻혔다. 그들의 무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 야망과 사랑을 온몸으로 실현한 그녀의 뒷모습은 허망하기까지 하다.



성지순례 기도도량
포항. 흥해. 칠포. 대원사

용의크기: 넓이 20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제중생은 신비의 용을 진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제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잡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입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禪)선종총本山**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조

-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 그늘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조와는 달리 무공해임
- ▶ 시간 조절 가능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법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윤택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탐침이 행사용
정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민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